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섬집 아기와 어머니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 주는 자장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어/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랫길을 달려옵니다.'

이 동요는 해외에 머물던 15년 동안 '고향땅'과 더불어 가장 많이 흥얼거리던 노래이다. '고향땅'은 초등학교에서 배웠지만 '섬집 아기'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어머니와 합창해 익힌 사연 깊은 노래이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가난하였다. 어머니는 가난을 이겨내려 숯 장사, 고구마 장사등 돈이 되는 일을 찾아 나서며 고되고 힘겹게 가난과 싸워오셨다. 집에서 부안 읍내까지는 10km가 넘는 길이었으나 버스 값을 아끼려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읍내의 장터까지 걸어 다닌 어머니였다. 밭이나 논에서 일도 많이 하였는데 그때

입대 전야, 어머니와 부른 '섬집 아기'
출가 후에도 어머니 생각나면 노래했다

마다 따라나서는 나에게 어머님이 들려주신 노래, 열 번 스무 번 들어서 익힌 '섬집 아기'였다.

하여, '섬집 아기'는 나의 그림자가 되어 인도와 네팔로 따라다녔고 티베트에서 고산증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군인들의 도움으로 깨어났을 때에도 나는 염불처럼 어머님을 떠올리며 '섬집 아기'를 중얼거렸던 것이다.

인터넷의 블로그 등에 많이 올려 있는 '내 죽거든'이란 시(詩)도 고산증세로 의식이 희미해져갈 때 안간힘을 다해 수행자로 유서로 남긴 글이다. 그 당시에도 나는 '섬집 아기'를 떠올리며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 '내 죽거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알리지 말길. 관이니 상여니 만들지 말길, 그저 입은 옷 그대로 둘둘 말아서, 타오르는 불더미 속에 던져 버릴 것'을 글로 남겼으리라.

나의 고향은 3면이 바다인 변산반도이다. 그러다 보니 바다가 멀지 않았고 어머니를 따라 '돈지'라는 바닷가에서 게 잡는 일이 자주 있었다. 게를 삶아 먹으면 시장기를 달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드문 일이나 가끔씩 갯벌의 구멍에서 쭈꾸미나 낙지를 잡는 횡재하는 일도 벌어지게 된다. 그날도 나는 은밀하게 확신을 갖고 경험을 되살려 낙지 잡이에 열중이었다. 바닷물이 썰물일 때 게 잡는 작업을 하다가 밀물로 바닷물이 차오를 때는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해변으로 빠져 나와야 한다.

그날, 나만의 은밀한 작업, 낙지 잡는 일에 열중하다 밀물의 바닷물에 갇히게 된다. 함께 간 동네 아줌마들이 어서 빠져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었으나 순식간에 허리까지 차오른 바닷물이 두려움을 더해주며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의 나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래도 애써 잡은 낙지 두 마리를 입에 물고 헤엄치려했으나 물이 깊어 서 있는 장승처럼 몸이 떨리며 굳어지고 있었다.

그때이다. 어머니는 게 잡은 망태도 바닷물에 던져버리고 온 힘을 다해 헤엄쳐 나를 끌고 안전지대로 빠져나오게 된 것이다. 바닷물을 토해내는 것은 나만의 일이 아닌, 어머니는 나의 등을 두드리며 연신 바닷물을 토하고 있었던 것이다. 낙지 두 마리도, 게 잡은 망태까지 잃어버린 빈 손이었지만 어머니와 나는 웃고 있었다.

당시 어머니는 가끔씩 예배당에 다녀오는 신참 기독교인이었으므로 감사의 기도도 잊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올 때 어머니와 부른 합창도 '섬집 아기'였다. 그 후 '섬집 아기'를 함께 부른 아이는 출가해 스님이 되고 군에 입대하게 된다. 첫 휴가 때 어머니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밥상 위의 쌀에서 깨진 쌀과 뉘를 가려내며 작은 소리로 '관세음보살'과 '아미타불'을 되뇌고 있었다. 소변 때문에 일어난 아들은 어머니의 '관세음보살'과 '아미타불'의 뜻을 묻게 된다. 어머니는 머뭇거리며 말씀하신다.

"하룻밤 자면 떠날 아들에게 싸래기와 뉘를 골라내 좋은 쌀로 밥을 지어 먹이고 싶어서이다. 뜻은 모른다만 아들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있었다."

아들은 가슴이 먹먹해 울고 싶었다. 어머니를 와락 껴안으며 그날 밤 졸라서 어머니와 함께 부른 노래가 '섬집 아기'였다.

꽃은 누구를 위해 피는가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불립문자(不立文字)를 표방하는 선가에서도 주옥같은 글을 남긴 선사들이 많았다. 그것은 선사들 중에도 학식이 높고 학문적 자질이 뛰어난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선불교가 인도에서 온 달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선이 토착화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달마도래 후 100년쯤이 지나고 양자강 이남에서 중국화 된 선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중국선의 자생적 발생에는 〈화엄경〉의 성기(性起)사상, 〈열반경〉의 불성, 여래장(如來藏)사상 그리고 노장사상(老莊思想)이 결합되어 발생하였다. 이리하여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중국의 선불교는 새로운 불교로 일어나면서 동아시아 전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당(唐)나라 때 일세를 풍미하던 선불교가 당나라가 망하고 송(宋)나라가 들어서면서 쇠퇴의 조짐을 보이게 된다. 다시 유교가 각광을 받으면서 유학을 공부하여 입신출세의 길을 가려는 것이 대부분의 상류층 지식인이 원하던 것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유학(儒學) 공부에 몰두하다 출가하여 세출간의 영웅이 된 선사가 있었다. 바로 설두중현(雪竇重顯, 980~1052) 선사다. 설두는 어릴 적부터 유학을 공부하여 뛰어난 자질을 보였다. 그는 특히 시(詩)에 재능을 발휘하여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세속의 부귀영화가 무상한 것을 깨닫고 23살에 출가를 결행했다. 익주(益州) 보안원(普安院)으로 들어가 스님이 되어 경과 율을 익힌 후에 지문광조(智門光祚)를 찾아가 5년간을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수행정진하였다. 그가 도를 깨달은 계기는 불자(拂子)에 얼굴을 맞고서다.

어느 날 스승 광조에게 물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의 허물은 어떤 것입니까?" 광조가 손에 들고 있던 불자로 얼굴을 후려쳤다. 그는 같은 질문을 다시 했다. 그러자 또 다시 불자로 후려쳤다. 이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운문종을 개창한 운문문언(雲門文偃), 향림징원(香林澄遠), 지문광조(智門光祚)의 대를 이어 운문종의 4대(四代) 조사가 되었다.

나중에 그는 스승의 청에 의해 절강성(浙江省) 명주(明州)에 있는 설두산(雪竇山)으로 들어가 자성사(資聖寺)에 머물면서 30여 년을 독특한 선풍을 드날렸다. 70여 명의 제자들을 배출하여 기울던 운문종의 종풍을 다시 일으켜 세운 운문종의 중흥조라 불리었다.

유학자 출신인 그는 글을 잘 하여 여러 가지 저술을 남겼다. 〈설두개당록(雪竇開堂錄)〉, 〈동정어록(洞庭語錄)〉, 〈송고백칙(頌古百則)〉, 〈조영집(祖英集)〉, 〈폭천집(瀑泉集)〉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단연 백미(白眉)로 꼽히는 것은 〈송고백칙〉이다. 부처님 당시로부터 그가 살았던 11세기까지의 선사들의 오도기연(機緣)과 공안에 송을 붙인 것이다. 선사(禪師)로서 공안에 대하여 본분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일종의 해설이다. 이 송고는 분양선소(汾陽善昭)에 의해 시작되어 설두, 묵조선(默照禪)의 거장이었던 굉지정각(宏智正覺), 무문혜개(無門慧開) 등이 송고집을 남겼다. 설두의 〈송고백칙〉은 후에 〈벽암록〉을 탄생케 한 모태가 되었다.

〈조영집〉은 설두의 시집이라 할 수 있는 책이다. 220 편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는 역대 중국의 황제들을 폄하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 대장경을 편찬할 때 목록에 포함되지 못하고 제외되었다 한다. 그러나 그의 시가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알려지기도 했다. 설두의 업적을 후대에 와서 평가하는 말에, 사람들이 선의 세계에 친근감을 갖도록 하고 관심을 기울게 하여 선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선사들만 이해하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선을 일반 사람들이 친근함을 느끼도록 해 준 것을 그의 공로로 친다는 것이다. 사실 선은 깨닫기는 어려워도 접근하기는 쉬운 것이다. 난해한 사변적이고 현학적인 교리를 탈피하여 학식을 앞세우지 않는 실천 수행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교학불교보다는 선불교가 일반대중에게 더 널리 퍼질 수가 있었다. 선에서 강조한 돈오사상이 나오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설두가 남긴 유명한 게송이 있다.

牛頭沒馬頭回
소머리로 사라졌다 말머리로 돌아오니
曹溪鏡裏絶塵埃
조계의 거울 속엔 티끌 먼지 없도다.
打鼓看來君不見
잘 보라고 북을 쳐도 그대는 못 보구나.
百花春至爲誰開
봄이 오면 피는 꽃들 누굴 위해 피는가?

보리심이 없으면 '佛果'도 없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① 발보리심은 무엇인가

施事已足爲一切衆生親者。未曾一念不與悲心相應。菩薩悲心遍緣一切無不緣者。以悲心遍故。後成佛時得一切種智無有障 ㉾以悲心故。捨聲聞解脫發菩提心。此初一念之心。唯佛知其邊量。況菩提行解脫樂。方初一念發菩提心。猶如大地金大地土不相方㊐。初發心時以能淨諸結使招一切功德。菩提是發心果。爲一切衆生求樂。菩薩發菩提心竟。未發願者問。解脫云何。以何因緣故問。以發心者如從解脫中來。是故問言。云何爲解脫相爲往到解脫故知爲解脫來耶。已發願者答言。發菩提心時歡喜快樂猶如解脫。是故得知。欲供養一切佛者當發菩提之心。欲報佛恩者當發堅牢菩提之心。除發菩提心更無有法能至菩提。若無菩提心則不得佛果。若不得佛果則不能救度衆生。

번역
하권 발보리심품 제15

보시하는 일을 마치고 일체 중생의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일찍이 일념으로 자비의 마음과 더불어 상응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은 두루 반연하되 일체에 반연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자비의 마음이 두루한 까닭에 나중에 부처가 될 때 일체종지(一切種知)를 얻고 장애가 없습니다.

자비의 마음 때문에 성문의 해탈을 버리고 보리의 마음을 냅니다. 이 처음 낸 한 생각은 오직 부처님이 그 한계를 헤아려 아시거늘 하물며 보리행과 해탈의 즐거움이겠습니까? 바야흐로 처음 일념으로 보리심을 일으킴은 마치 대지의 금과 흙이 서로 비교되지 않는 것과 같으니, 초발심으로써 능히 청정하며 일체의 공덕과 맺어지게 됩니다. 보리는 발심의 결과이며, 일체 중생의 즐거움을 구하게 하기 위해 보살은 발보리심을 마친 것입니다.

아직 원을 세우지 않은 사람이 묻되 "해탈이란 무엇인가?"하는데 왜 묻는가 하면 발심이란 것이 해탈에서 오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묻기를 "어떤 것이 해탈의 모습인가. 해탈로 가고 해탈이 온 줄 안단 말인가?" 합니다. 이미 원을 세운 사람의 대답은 "보리심을 발할 때의 기쁨과 쾌락이 마치 해탈과 같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들께 공양하려는 이는 보리심을 발하며,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이는 응당 견고한 보리심을 발합니다.

발보리심을 제거하고서는 능히 보리에 이를 법이 없습니다. 만일 보리심이 없다면 불과(佛果)를 얻을 수 없고, 불과를 얻지 못하면 중생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해설

용수 보살 이후 대승불교 사상은 모두 제바라보살(제바:提婆. 아리야데바. 170~270)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제바보살은 말한다. 부처를 이루고, 부처가 되어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대답의 서막이 오늘 소개하는 본문이다. 또한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도 본문에 들어 있다. 아울러 깨달음을 이르는 보리(菩提)와 발보리심(發菩提心)이 같은 의미라는 것도 밝히고 있다.

이 구도는 간단하고도 명확하다. 일체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발보리심'이며, 발보리심이 바로 지혜인 '보리'라는 것이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번뇌를 여읜 해탈(解脫)이란 것도 발보리심을 일으킬 때 찾아오는 기쁨과 쾌락이라고 한다. 부처를 이룬다는 불과(佛果)도 발보리심의 인연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토록 쉬운 일이 우리에게 그토록 어려웠던 건 왜일까? 견고하지 않아서, 믿지 못해서일 것이다.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관장 : 이준혁

※ 지면은 쥐 · 원숭이 · 용띠 기준 ※

개운원판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12신살을 이용한
방위개운법 붉은색이
정북입니다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은 1회 전화 및 방문하시면 상담 하여드립니다.



특수유압 나침판을 드립니다

• 가액 : 20만원
특허번호 4-2013-035176-1
특수재질 PC
NAVER
귀장술 원판
귀장술 수강생 모집
검색

수강생 모집
초보자도 교육가능 합니다.

※ 원판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작 배포할 시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故 박일우 선생님 영전에 바칩니다

문 의 : 010-8558-2345 / 02)2273-8557 계좌번호 : 신한 110-371-828252 (예금주 : 이민희)
주 소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6-9 금강빌딩 B-105호 (5호선, 8호선 천호역 3번출구)